

후지보의 니트 텍스타일

- 캐주얼 느낌의 소재가 중점, 땀 얼룩 방지 가공도 호평

후지보 어패럴의 텍스타일 부(Textile 部) 니트과(課)는 2010년 춘하절의 니트 텍스타일로서 캐주얼 감(casual 感)이 있는 소재를 확대하여 충실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항간에서 화제로 되어 있는 땀 얼룩 방지 가공인 ‘디스노티스드(Disnoticed)’를 보완하여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 신소재로서 큐프라(cupra)·면 혼방사(混紡絲)를 사용한 것도 새로 시장에 내놓아 계속 시장이 부진한 니트 텍스타일 사업을 잘 유지하며 확대할 예정이다.

후지보는 불황의 영향으로, 2009년 춘하절 판매 경쟁에서도 부진하였다. 특히 자신있는 연속 실켓사(連續 silket絲)인 ‘렌실’을 사용한 소재는 고급 부인 아우터(高級 婦人 outer) 용도로 대부분을 돌리고 있는데, 최종 판로인 백화점의 판매가 시원치 않은 것이 직접 타격을 준 결과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캐주얼감을 주는 소재는 판매량이 줄지 않고 있다.”고도 한다. 정제(精製) 셀룰로스 섬유 ‘렉셀’·면 혼방(混紡)으로 짠 평편지(平編地)나 서클러 리브편(circular rib編)의 양면 리브편(兩面 rib編)을 바탕으로 한 브로드 리브편(broad rib編) 등도 잘 팔렸다. 이들은 60수 2합연사(2合撚絲)의 28게이지(gauge)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2010년의 춘하절에는 캐주얼감이 있는 소재가 주가 되겠다. 질이 좋은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캐주얼이면서도 엘레강스(elegance)’한 기획을 충실하게 짤 생각이다. 또한 주목을 많이 받게 된 땀 얼룩 방지 가공으로서 후지보 텍스타일 와카야마 공장(和歌山工場)에서 가공하는 리스노티스드 가공을 보완하여 다시 판매하고 있다. 벌써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소재로서 큐프라(Cupra)·면 혼방도 시장에 내놓고 있다. 혼방사를 자신있게 실켓가공함으로써 선명한 발색성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80수 2합연사, 100수 2합연사를 사용한 촘촘하게 짠 평편물(plain stitch knit), 평편을 중심으로 한 부인용의 고급 아우터

(outer)와 이너(inner) 용도로 제안하고 있다.

비수기인 추동절 상품을 크게 늘리는 것도 큰 테마가 되고 있다. 이미 델리버리(delivery : 納品)한 2009년 추동절 상품들은 와카야마 공장의 특수 촉감 가공한 ‘로즈페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면 100% 60수 단사로 짠 인터록 편(interlock 編) 등에 독자적인 바이오 가공에 의한 피브릴감(fibril感)이 트렌드의 영향을 받아 잘 팔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품보다도 더욱 부드러운 타입도 준비하고 있다. 렉셀·면 혼방의 스트레치 펀치(stretch punch)도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와카야마 공장의 가공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추동절 소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텍스타일부의 제품과(製品課)와 공동으로 제안함으로써 생지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망에 따라 제품 납입까지 받아들일 생각이다. 이와 같이 일을 추진함으로써 니트 사업 전체에서의 사업의 용량을 유지·확대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